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인쇄일 2006년 4월

발행일 2006년 4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2521, 팩스: 02)901-2541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02)2285-093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6 – 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	I.	문제 제기
1	II.	QDR 발간의 배경과 의미
4	III.	2006년 QDR과 2001년 QDR의 초점 비교
5	IV.	2006년 QDR의 주요 내용
5	1.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으로 규정
7	2.	장기전(long war) 수행
8	3.	장기전 수행 전략 운용의 4대 우선순위
13	4.	4대 우선순위 실천을 위한 전시전력기획 구성 개념
16	V.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16	1.	시사점
18	2.	정책적 고려사항

I . 문제제기

- 미국 국방부는 2006년 2월 초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를 발표하였음.
 - QDR은 1997년 처음 발간되었으며, 200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의 보고서임.
- 2006년 QDR은 2001년 9·11테러사태 이후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향후 국방전략과 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공하는 것임.
- 2006년 QDR은 서문의 첫머리에서 “미국은 장기전(long war)에 돌입해있는 국가”라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전쟁’의 개념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2006년 QDR의 주요 내용을 분석·소개하고,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II . QDR 발간의 배경과 의미

- 미국은 소련 진영의 붕괴 등 냉전 종식에 따라서 냉전시대의 봉쇄전략과 군사력 규모 및 군사기획 등 전반적인 국방전략 및 군사태세의 재편성이 요구되었음.
 - 이에 따라 1991년 「기반전력검토보고서」(Base Force Review), 1993년 「아래로부터의 검토보고서」(Bottom-Up Review), 1995년 「군사력의 역할 및 임무 검토위원회보고서」(Commission on Roles and Missions of the Armed Forces) 등을 통해 군사력, 절차, 기구 등의 재조정이 있었음.
- 이후 「199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1997)에 포함된 「군사력구조 검토법」(Military Force Structure Review Act)에 따라 첫 번째 QDR이 1997년 5월에 발간되었음.

- 동 QDR은 1997~2015년 기간의 미국의 국방요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검토보고서로서, 잠재적 위협, 전략, 전력구조, 준비태세, 군사현대화프로그램, 국방 하부구조 및 기타 요소들을 담았음.
- 또한 1997년의 QDR은 전략에 기반을 두고, 균형적이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국방프로그램의 청사진(blueprint)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였음.
- 두 번째의 QDR은 2001년 9·11 테러사태의 상황을 긴급히 반영하여 2001년 9월 30일 발간되었음.
 - 동 보고서는 ①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②기습(공격)수단의 확보가 능성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기습(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습 가능성의 증대와 언제 기습이 발생할지 모르는 기습의 불확실성 증대의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 미국 본토 방위가 최우선시 되었고, 전진억제와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처가 부각되었음.
 -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변환(transformation)을 강조하고, “위협에 기초한”(threat-based) 국방기획에서 미래에 대비한 “능력에 기초한”(capabilities-based) 국방기획으로 전환함.
- 미국법령집 제10부 제2장 제118조(Sec. 118, Chapter 2 of Title 10 US Code)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향후 20년간의 국방전략을 결정하고 국방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매 4년마다 국방전략, 전력구조, 전력현대화계획, 하부구조, 예산계획 및 기타 국방프로그램 및 정책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 QDR은 미국의 장기국방전략을 발전시키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변환(transformation)의 방향을 설정
- 이번 QDR은 9·11 테러사태 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제반

변화를 반영하면서 대통령의 2007 회계연도 예산요청 제안과 일정을 맞추도록 의회가 제출일자를 조정해줌으로써 2006년 2월 6일자로 발간됨.

- 2006년 QDR은 2025년까지 향후 20년간 미국이 지향할 국방전략을 담은 것으로서 2005년 3월의 「국방전략보고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의 기반 위에 있으며,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2004년의 「군사전략보고서」(National Military Strategy)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반영하고 있음.
 - QDR은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위험 균형을 잡으면서 군사전략과 그의 실천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잘 조정하려는 의미를 가짐.
 - 미국은 QDR의 상위문서인 NSS를 2006년 3월 16일 발간함.
- 한편, 1997년 이후 발간되고 있는 QDR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 체니(Dick Cheney) 부통령이 아버지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 행정부의 국방장관 시절 국방부 내부연구로서 수행한 1992년의 「국방기획지침(서)」(Defense Planning Guidance, DPG)에서 제시된 기본정책 노선 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¹
 - DPG는 미국의 군사력은 ①미국의 지구적 우위(preeminence)를 확보하고, ②초강대국 도전자의 부상(浮上)을 억제하며, ③미국의 원칙과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안보질서를 형성하는 것 등을 기본정책으로 제시함.
 - 그러나 DPG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 언론에 노출되어 공식적으로는 폐기됨.

¹ Thomas Donnelly, "Kill the QDR," February 1, 2006. <<http://www.aei.org>>.

III. 2006년 QDR과 2001년 QDR의 초점 비교

- 2006년 QDR의 핵심은 군사전략 및 군사력의 의도된 변환(transformations)

구 분	20세기 국방 패러다임	21세기 국방 패러다임
문제 인식	평시의 속도	전시의 긴박감
국제상황 인식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시대	기술과 불확실성의 시대
위협의 종류	단일 초점의 위협	다수의, 복합적인 도전
위협의 원천	민족국가 위협	비(非)국가 적들로부터의 분산된 네트워크 위협
전쟁의 대상	국가와의 전쟁	전쟁관계에 있지 않은 나라(안전지대)에서의 전쟁 수행
역제의 방법	“만능형” 억제	불량국가, 테러 네트워크 및 유사 경쟁자에 대한 맞춤형 억제
대응의 시기	위기발생 이후 대응(사후 반응적)	문제가 위기로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적 행동(사전 행동적)
대응의 목적	위기 대응	미래 조성
기획의 유형	위협에 기초한 국방기획	능력에 기초한 국방기획
기획의 초점	운동성(kinetics)에 초점	효과(effects)에 초점
미군 전개 방식	정태적 방위, 주둔군	기동, 원정 작전
	전투 준비군(평화)	전투 단련군(전쟁)
군사력의 초점	대규모 제도적 군사력(군수지원)	좀 더 강력한 작전능력(전투)
작전의 중점	주요 재래식 전투 작전	다수의 비정규, 비대칭 작전
작전의 개념	각 군별 작전 개념	합동 및 연합 작전
작전의 수단	함정, 총기, 탱크 및 비행기 규모에 대한 강조	정보, 지식 및 시의적절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첨보(정보)
작전의 초점	집중 전력	집중 효과
동맹국 관계	정태적 동맹	동태적 파트너십
미군의 역할	미군이 임무 수행	파트너 능력 구축에 초점
정책접근 방식	국방부 독자 해결	부처 간 협력 접근

출처: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pp. vi~vii
(단, 구분 항목의 각 제목은 필자가 작성).

IV. 2006년 QDR의 주요 내용

1.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long war)’으로 규정

- 2006년 QDR의 안보환경 평가는 2002년 NSS에서 표명된 냉전 이후 유일초강대국 미국의 지도력 지속이라는 배경이 유지되면서도 2005년 NDS의 평가, 즉 비전통적 도전 및 전략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국은 미래의 도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위에 있음.
-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규정함.
 - 이 장기전의 적은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슬람을 활용하는 산재한 지구적 테러 네트워크
 - 테러 네트워크는 핵·생물무기 획득·사용을 공언하고, 테러·선전·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
 - 이들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영속적 갈등을 추구
-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향후 상당기간 동시에 많은 지역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2006년 QDR은 2001년 QDR에서 제시된 어젠다, 대테러전의 경험 및 여타 임무들로부터 아래의 교훈을 얻음.
 - 공동의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단독보다는 파트너십 구축과 간접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
 - 문제가 갈등 또는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행동의 신속성을 증대
 - 21세기의 안보 도전에 대처함에 있어서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의 행동의 자유를 증대
 - 적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반면 미국의 비용은 최소화하고, 특히 잠재적 경쟁자

에 대한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

- 2006년 QDR의 기반은 2005년 NDS로서, 미국의 군사력은 전통적 전쟁에서의 압도적 우위 유지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비전통적이고, 비대칭적인(non-traditional, asymmetric) 다음과 같은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민족국가의 정규군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의 비정규적 전쟁(irregular warfare) 도전
 -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재앙적 테러(catastrophic terrorism) 도전
 - 미국 군사력의 질적인 우위 유지와 투사력에 대한 파괴 위협(disruptive threats) 도전
-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전략의 4대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①테러 네트워크의 격퇴
 - ②미국 본토의 심층 방어(방어)
 - ③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지 조성
 - ④적대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 예방
- 4대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의 본토방어 책임을 더 잘 규정하고, 테러 와의 전쟁 및 비정규적 전쟁 활동을 더 강화하며, 정상상태의 전력 수요와 다년 간에 걸친 파동적 활동 간의 구분을 위한 전시 ‘전력 기획구성개념’(Force Planning Construct)을 정교화 함.
 - 특히 2006년 QDR은 21세기의 복합적인 전략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역 및 예비군, 민간, 계약자를 망라하는 총체전력(Total Force) 개념을 강조
- 그리고 4대 우선순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7년 회계연도에 추진할 핵심적 과업으로서 아래의 사업을 제안함.
 - ①테러 네트워크 격퇴를 위한 전력 강화: 특수작전전력 15% 증강, 특수전력 대대 안력 1/3 증강, 해병대특수작전사령부 창설, 무인항공기대대 창설 등

- ②본토 방어 및 안보 강화: 유전자공학으로 생성된 생물테러무기 위협에 대한 광범위의료대응조치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 달러 조성, 사전 탐지 및 억제기술 개발 등
- ③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지 조성 지원: 강건한 핵억제 유지와 함께 광범위한 재래식 및 비활동 억제 옵션 개발 등
- ④적대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 예방 능력 향상: 전략사령부에 對WMD 전투의 통합 및 동시 수행을 이끄는 전투사령부 임무 부여 등

2. 장기전(long war) 수행

- 미국은 2001년 이후 과거와는 다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 미국이 싸우고 있는 적은 민족국가가 아니라 산재된 비국가 네트워크임.
 - 미국과 전쟁하지 않고 있는 여러 대륙의 나라들에서 작전이 수행되고 있으며 군사력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
- 현재 약 35만 명의 미군이 약 130개 국가에 배치되거나 주둔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4년간의 작전들을 통해 전투에 단련되어 있음.
-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통해 탈레반 독재정권과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으며, 이들 나라에서 테러와의 장기전을 수행 중에 있음.
 - 이밖에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비정규적 전쟁과 인도주의 및 조기 예방조치들을 수행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파트너십 능력 구축을 위한 권한과 재원 확보 필요, 조기 예방 조치 실시 필요, 행동의 자유 증대 필요, 적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부담 초래 필요 등의 교훈을 얻음.

3. 장기전 수행 전략 운용의 4대 우선순위

가. 테러 네트워크의 격퇴

- 지구적 비국가 테러 네트워크의 등장이 지난 10년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들은 다국적, 다인종의 테러 네트워크로서 산재되어 있음.
- 테러 네트워크는 협박, 선전, 무차별적 폭력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핵 및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획득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들과의 전쟁은 무력전투이자 그들의 잔악한 이데올로기를 분쇄하는 사상전투임.
-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테러 네트워크들을 가차 없이 발견, 공격 및 파괴하는 공세를 유지해야 하며, 그들에게 물리적 및 정보 영역에서의 피난처를 거부함으로써 지구적 압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인 접근을 혼합해서 활용해야 함.
 - 적의 능력과 인력을 알아내기 위해 상시적인 감시와 더 나은 정보 필요
 - 지구적 이동성, 신속 타격, 지속적인 비재래식 전투, 외국의 내부 방위, 對테러 및 對반란 능력이 필요
 - 미군이 전통적으로 작전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장기간 · 저시정(低視程) 주둔 필요
 - 파트너 능력의 구축과 대리인의 활용
 - 적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의 성격을 전환
- 이러한 접근에 상응하여 테러 네트워크 격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능력의 확보가 필요함.
 - 적의 의도 식별을 위한 인간 정보, 적의 능력 발견 및 정밀 타격을 위한 상시 감시, 사이버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테러리스트 위치 파악 · 추적 능력, 특수 작전전력, 현지전력의 훈련 · 장비구축 · 자문, 비정규전 수행 및 안전 · 안

정·전환·재건 작전 등을 위한 다목적 전력, 적시정보기반 신속 행동을 위한 정보 및 작전 능력과 기구, 파트너 능력 확장 촉진을 위한 언어와 문화의 인식, 도시전투능력, 이동하는 적을 신속공격하기 위한 지구적 타격, 미군과 파트너국 보안대의 합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한 강변전투 능력, 적의 선동·선전에 대한 신속 대처와 미군의 행동 효과적 전달 능력, 부처 간 협력 제고, 참여국의 능력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 미국의 광범위하고 신축적인 권위 등

나. 미국 본토의 심층 방어

- 미국 본토의 지리적 고립성은 더 이상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족국가가 폭력의 재앙적인 사용에 대해 독점하지도 않음.
 - 전통적 군사수단으로는 민족국가보다 더 억제가 어려운 비국가 적들은 화학·생물 및 조잡한 방사선 또는 핵장치를 무기화하고 대량살상용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또한 이들은 정부시설, 상업 및 금융체계, 음식·물·전력 공급원 등 매우 다양한 대상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음.
- 미국 본토 방위의 전략적 목표는 「국가해상안보정책」(National Maritime Security Policy)과 「본토 방위 및 민간지원 전략」(Strategy for Homeland Defense and Civil Support)에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막는 것임.
- 미국 본토 방위는 연방·주·지방 기관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및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적극적이며 중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능력의 확보가 특히 필요함.
 - 연방·주·지방 정부 간 상호운용할 수 있는 통신·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하여 본토 방위 및 민간 지지 과업을 위한 합동지휘·통제능력
 - 신속한 정보수집·융합·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상황 인식 및 정보 공유 증대를 위한 항공 및 해상 영역 인지 능력

- 주요 재앙적 사태의 결과 관리 능력
- 유전공학 생성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병원균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 대응조치
-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신속한 지구적 타격 능력 등 맞춤형 억지 능력, 항공 및 미사일 방어와 적의 목표 거부능력 시현을 통한 공격의 사전 억지
- 인위 또는 자연재난의 경우 방위군 및 예비군 활용에 대한 신장된 권위

다.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지 조성

- 미래의 안보에 있어서 강대국 및 신흥 강대국들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해 적대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협력과 상호안보이익을 촉진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유럽과 아·태지역을 넘어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유동치고 있으며 새로운 지-전략적 기로에 서 있음.
 - 중동은 궁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며 내부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지역 불안정 요인이며 테러 네트워크는 세계경제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공급을 위협할 수 있음.
 -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자유 시장을 향한 길이 아직 멀며, 역내 국가들은 이슬람테러 극단주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라틴아메리카는 수십 년에 걸쳐 정치·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낮은 경제 성장, 위약한 민주제도,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등이 대중영합주의(populist) 권위주의 정치운동의 재등장을 가져오고 있음.
- 인도, 러시아, 중국은 21세기 국제안보환경을 결정짓는 핵심 국가들임.
 - 인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임.
 - 러시아는 과도기에 있으며, 미국에 대해 냉전시기와 같은 규모 또는 강도의 군사적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임. 러시아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테러 와의 전쟁·마약거래 대응 등에서 협력할 것이나 러시아의 민주주의 침식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할 것임.

-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며, 미국의 대응전략이 없으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파괴적 군사 기술을 배치할 수 있음.
- 미국의 대중정책 초점은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건설적, 평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테러·확산·마약·해적 등 공동안보도전에 대응하는 파트너로 봉사하도록 촉진하는 것임.
- 특히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계속 미국의 경제파트너로 남고 세계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및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은 모든 주요 강대국 및 신흥 강대국들이 국제체제의 건설적 행위자 및 이해당사자로서 통합되도록 할 것이며, 어떤 외국 세력도 지역 또는 지구 안보의 조건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임.
 - 어떤 군사적 경쟁자도 지역패권 추구와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파괴적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단념시킴.
 - 억지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적대국가의 전략 및 작전 목표를 물리칠 것임.

-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합동훈련·고위급 대화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안보협력 및 개입 활동, 신흥 강대국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언어 및 문화적 인식 개선, 상시적 감시, 합동전투력의 신속 전개·결집·지휘·투사·재편 및 재고용 능력, 침략 또는 억압을 억지하는 신속·대규모 지구적 타격능력과 억지 실패 시 광범위 재래식 옵션을 대통령에게 부여, 감시 및 타격체계 지원을 위한 광대역 통신 확보, 단·중·장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 통합 방어체제, 항공지배능력, 수중전투능력, 사이버공간 형성 및 방어능력, 대량살상무기·전자 또는 사이버 공격에 생존할 수 있는 합동지휘·통제 능력 등

라. 적대국가 및 미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 예방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사용을 추구하는 적대정권 및 테러 집단들로부터

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바, 여러 잠재적 적대국들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음.

-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는 지역 패권을 주장하고 타국을 위협하는 수단이며, 핵·생물·화학무기는 정권 생존의 보장, 미국의 주요 지역 접근 거부, 자국에 대한 타국의 행동 억제 등을 위해 휘두르는 수단임.
- 또한 이들 국가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테러집단에 무기와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을 간접적으로 위협함.
 - 북한은 핵·화학·생물무기를 추구해왔으며 다른 우려국가들에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를 팔았음.
 - 이란의 핵능력 추구, 테러 지원 및 지역 내 이웃 국가들에 대한 위협적 언사도 그 의도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제기함. 이란은 또한 장거리 전달체계를 신속 개발 중임.
- 갈등 발생 시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테러집단에게 대량살상무기 획득의 기회를 가져다 줌.
 - 또한 기술발전 및 기술정보의 확산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음.
- 미국의 기본 목표는 적대국이나 적대적 비국가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그 방법으로써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 물질에 대한 접근 거부, 이전 제지 및 생산프로그램 분쇄를 위해 적극적 조치와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
- 구체적으로 적의 공격 억지, 대량살상무기 탐지·식별·추적,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폭발장치(폭탄)에 대한 통제 상실의 경우 행동 실시, 광역 감시, 국내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공격 사후 수습, 평시·전투 중 전투 후 대량살상무기 물질

제거 등 모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수단

- 적대국 및 적대적 비국가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유형은 아래와 같음.
 -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와 관련 물질 탐지 · 식별 · 추적 등 특수작전 능력, 공중 · 해상 · 지상에서의 차단능력, 상시 감시, 인간정보 · 언어 및 문화인식 능력, 적대적 환경에서의 특수작전 능력 등

4. 4대 우선순위 실천을 위한 전시전력기획 구성 개념

가. 3대 목표 영역: 본토방어, 대테러 및 비정규전, 재래식 전투

- 먼저 2001년 QDR의 전력기획 구성개념 핵심 요소를 재확인함.
 - 본토 방어 능력 유지
 - 전진기지에서의 작전
 - 중복된 기간 동안 복수의 전투 수행 능력 및 전력의 유지
- 테러와의 전쟁 등 최근의 작전 경험으로부터 전시전력기획의 정교화를 위해 보강되어야 할 부분을 구분함.
 - 국방부의 본토방어 책임과 타 부처의 책임 간의 명료한 구분
 - 2001년 QDR에서 제시된 4개 지역(유럽, 중동, 아시아 연안, 동북아)에서는 물론 전 지구적 작전 능력
 - 비정규적 전쟁 대응 능력
 - 테러 네트워크와의 장기전 작전을 포함, 평상시(steady-state) 작전
 - 억지 및 평시 조성 행동에 필요한 전력 및 능력
 - “신속 격퇴” 또는 “결정적 승리” 개념은 재앙적이고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하는 국내사태의 사후 관리 민간 활동 지원, 비정규전 등에는 덜 유용
- 상기 검토의 기반 위에서 전력기획구성개념을 3개 목표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상시(steady-state) 행동의 지속적 수행과 격동기(surge) 행동의 일시적 수행

으로 구분함(표 참조).

- 본토방어
- 대테러 및 비정규(비대칭) 전쟁
- 재래식 전쟁

나. 3개 목표 영역의 대응 능력

(1) 본토방어

- 평상시: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 위협의 탐지·억지 및 필요시 격퇴와 우방국의 미국 안보에 대한 기여(예: 연방·주·지방 정부와의 협력, 전략적 억지, 통상적인 해양작전, 북미항공방어, 미사일방어, 민간 당국의 사후관리 지원체계 등)
- 격동기: 대량살상무기 공격 또는 재앙적 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사후 관리 지원, 육상·해상·항공·우주 및 사이버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방어 대응 수준 제고

(2) 대테러전 승리 및 비정규전 수행

- 평상시: 외부의 초국가적 테러 공격 억지 및 방어, 통합안보협력프로그램을 통한 우방국과의 협력, 복수의 전지구적 비정규작전 수행,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기 대게릴라전 수행, 전진배치를 통한 억지
- 격동기: 대게릴라작전·안정화·전환 및 재건작전 등 대규모의 장기적인 비정규전쟁 수행(예: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3) 재래식 전쟁 수행 및 승리

- 평상시: 전진배치전력을 통한 국가 간 억압 또는 공격 억지,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배치임무 수행 (예: 일상적 주둔업무, 군사교류, 합동훈련, 안보협력, 잠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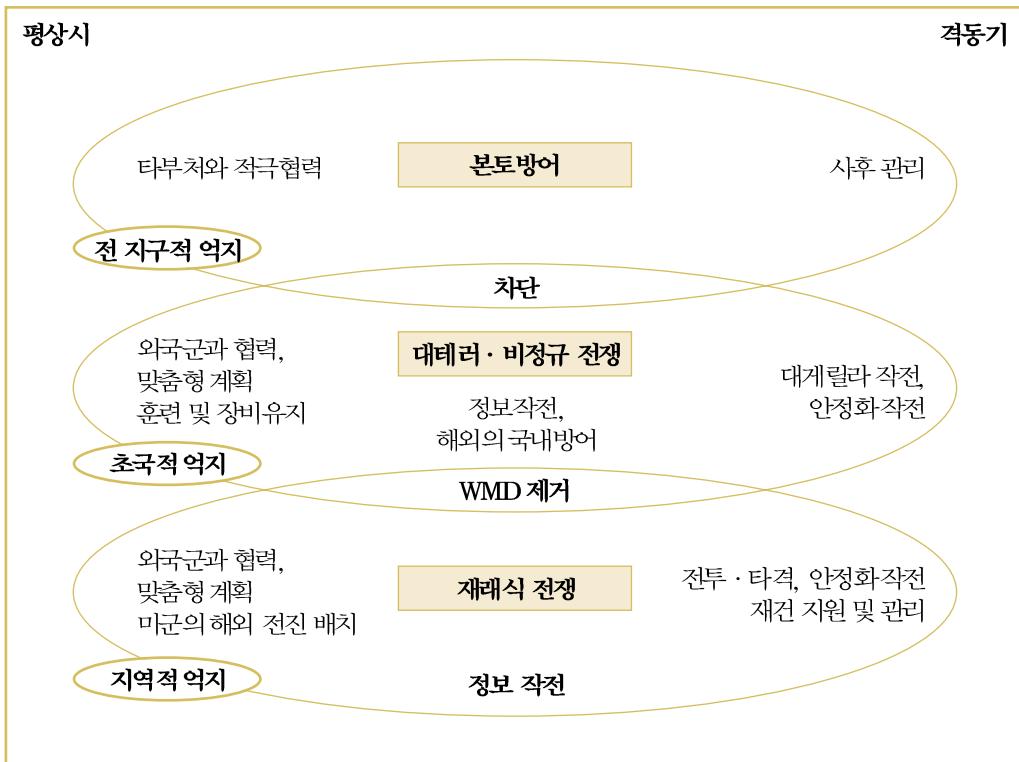
적국의 훈련기간 중 대응태세 증강 등)

- 격동기: 거의 동시적인 두 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또는 대규모 장기적 비정규전 진행 시 한 개의 재래식 전쟁 수행), 두 개의 전쟁 수행 중 1개국에서의 적대 정권 제거 · 군사능력 파괴 · 시민사회로의 전환 또는 회복 환경 설정

다.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조 강조

- 2006년 QDR은 미국 본토 방어에서부터 비정규전쟁 및 재래식 전쟁에 이르기 까지 격동기의 작전에서 국내 타 부처는 물론 동맹국 및 우방국의 보다 수준 높은 기여를 고려하고 있음.
 -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및 여타 활동의 수준을 증대

<도표> 3개 목표 영역과 중점대응



V.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1. 시사점

- 2006년 QDR은 테러와의 전쟁을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 규정하고 동 전쟁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바, 미국의 국방전략은 상당 기간 재래식 전쟁에 대한 대비와 함께 대테러·비정규전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 가능함.
 - 본 QDR이 2005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의 전력기획지침 대신에 사용될 것이며, 미래의 소요 능력 및 전력에 분석 기반이 될 것임을 밝히고,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재평가 및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방지가 주 대상으로 부각되어 있는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 6자회담 등의 외교적 협상 채널과 함께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적극적 조치의 실행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2006년 QDR은 형식상 2001년 QDR의 1(본토 방어)-4(유럽·중동·아시아연안·동북아)-2(두 개의 전쟁 동시 수행)-1(1개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 개념으로부터 1(본토 방어)-1(대테러 및 비정규 전쟁)-1(재래식 전쟁) 개념으로 변화되었음.
 - 2001년 QDR과는 달리 3대 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위협·도전과 그에 대한 대응 능력개념으로 전환하여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대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신축성·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도전 요인의 발생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의 신속·유연 재배치 및 대응과 관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바, 한국의 직접적인 안보우려 사항 이외의 영역에서 주한미군의 유연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음.
- 2001년 QDR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에 두 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바, 이는 한정된 병력과 전력 등으로 비정규·비대칭 전

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격동기의 대응 시 2개 전쟁 수행 과정에서 1개국 적대 정권 제거 · 군사 능력 파괴 · 시민사회로의 전환 환경 설정을 강조하고 있는바, 한반도 위기 발생시의 대응 방향을 추정할 수도 있음.

- 2006년 QDR은 특히 지구적 차원의 비정규 · 비대칭의 21세기형 안보도전을 중요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전략과 정책, 전력구조 변환 등이 강조되고 있는바,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기지재편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이에 따라 미국 측의 입장에서 한 · 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과 임무는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도 한 · 미 안보동맹의 미래 발전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정책 협의과정에서 우리 측의 미래 비전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임.
- 2006년 QDR에서는 특히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을 위한 선택지 조성”과 미국 본토 방어, 효과적인 대테러전 수행, 21세기의 안보도전에 대응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동태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바,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 ·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과 능력을 유지하되,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 중 · 장기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부상을 중시하고 있는바, 특히 중국의 잠재적 ‘패권국’ 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 향후 국제질서 조성 역할을 잠재적으로 ‘인정’ 하는 것이며 따라서 미 · 중 간 협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도전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은 반발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 · 중간에는 고위급 전략 대화가 가동되고 있음.
 - 향후 미 · 중 간 전략적 구도의 변화는 한반도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미국의 대중정책 목표의 강조점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세심한 추적 · 관찰 · 판단에 입각한 우리 측의 정책 대응이 요구됨.

- 2006년 QDR에서는 적대국 및 적대적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또는 사용 방지와 관련 북한이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06년 「국가 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마찬가지임.
 - 두 개의 보고서에서 공히 지적되고 있는바와 같이 북한의 확산 우려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차단능력, 상시 감시 등의 강화를 추진할 것임.
 - 6자회담의 틀을 통한 외교적 '압박'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확대 실시, 추가적인 경제제재, 정보수집 활동 강화 차원의 비밀공작 등이 가능할 것임.

2. 정책적 고려 사항

〈한·미 동맹 변화 관련, 우리 측 비전 강구·투입〉

- 2006년 QDR의 핵심(key word)은 변환(transformation)에 있는바, 향후 미국의 국방변환·군사변환 요구의 구체화에 따라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미래 방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전시작전권 이양 로드맵 협상 등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우리 측의 비전 철저 준비
- 또한 주요 위협·도전에 대한 대응을 특정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대응 전략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바,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비정규·비대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상의 의무 및 동맹국 차원의 공헌 증대와 이와 관련한 방위분담의 개념 변화에 대비
 -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제고 시나리오를 예상, 각각의 경우에 대응 방안 마련

〈북핵 문제 관련, 한·미 정책 협력 강화와 남북관계 지속〉

- ‘테러와의 장기전’ 차원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외에 북한이 미국의 정책적 주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 조치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북한은 2006년 2월 21일 노동신문 “위험한 선제공격 기도” 제목의 논평을² 시작으로 미국의 QDR을 북한을 ‘선제공격’ 하기 위한 “위험한 전쟁시나리오”로서 비난하고 또 미국이 QDR, NSS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북·미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공방이 심화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한·미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차원에서도 당국 간의 접촉·의견 전달 채널을 지속 유지함.

〈북·미관계 및 한·미관계의 악화 방지〉

- QDR의 개념에서 보면 북·미관계는 핵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사용 중지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인바, 미국은 지구적 차원의 협력적 위협감축(Global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 부품·기술의 유출, 위폐제조·마약 밀매 등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독자적인 대응을 강화 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과의 협의 없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압박’ 조치 강화로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² 「연합뉴스」, 2006년 2월 21일. <<http://www.yonhapnews.co.kr>>.

- 한편,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한국은 그러한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수록 미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 북한이 한·미관계의 틈새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contingency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요구도 증대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준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현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 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 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민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파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학술 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하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